



2004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표

전세계 인구를 위한 노력

- 편집실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유엔기금과 함께 9월 15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카이로 합의 10년 : 전세계적인 인구, 생식보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2004 세계인구현황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시백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참석하여 앞으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청소년,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다양한 당면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

을 촉구하고 이러한 인구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는 현재 전세계 인구는 64억이며 아직도 매년 7,600만 명씩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96퍼센트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저출산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는 인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1994년 카이로에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가 개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각국은 생식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발표



일간보사 이창진 기자 발표



한겨레 국제부 강김아리 기자 발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유엔기금과 함께 2004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구관련 문제는 사회, 경제, 보건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급한 당면과제를 모두 함께 풀어야 하며 다각도에서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보건증진, 환경파괴예방, 빈곤퇴치, 성 평등 확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생식보건 정보와 서비스,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구문제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1994년 국제 인구 개발회의 이후 한국의 인

구관련 사회, 경제, 보건 분야의 변화를 정리한 한국의 ICPD+10에도 발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조선일보의 김동섭 기자, 한겨레 강김아리 기자, 일간보사의 이창진 기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왔고, 교육수준이나 생식보건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되었으나, 인구대체수준(2.1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협회의 역할이 강조 되었다.